

큰스님 수행한담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②

故世尊云 普觀一切衆生 具有如來 高世尊은 보과일체중생 구유여래 普觀德相 又云一切衆生 種種幻化 지혜덕상 차운일체중생 중종환화 皆生如來圓覺妙心 是知離 개생여래원각묘심 시지이 此外 無佛可成 過去諸如來 차심의 무불가성 과거제여래

담재여신중 여자불견 여어십시중 知離如來 知離如來 或煩或喜 지기지갈 지한지열 흑진흑희 竟是何物 且色身 是地水火 경시하를 차색신 시지수화 風四緣所集 其質頑而無情 풍사연소집 기질완이무정 豈能見聞覺知 能見聞覺知者 기능견문각지 능견문각지자 必是汝佛性 故臨濟云 필시여불성 고임제은 四大不淨說法 虛空不說法 法法 사대불해설법법 허공불해설법법 只汝目前 歷歷分明 勿形段者 지어목전 역역고명 불형단자 始解說法 始解說法 시해설법법 所爲勿形段者 是諸佛之法印 소위물형단자 시제불지법인 亦是汝本來心也 則佛性 現在汝身 역시여본래심야 즉불성 현재여신 何假外求 汝若不信 路學古聖 하가외구 여악불신 악거고성

그러므로 세존께서 '널리 모든 중생을 관찰하니 다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가지가지의 허망된 생각들이 다 원만히 깨달은 여래의 묘심(妙心)에서 나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只是明心見性 現在諸賢聖 지시명심견성 현재제현성 亦是修心人 未來修學人 역시수심자인 미래수학인 當依如是法 當依如是法 당의여시법

願諸修道之人 切莫外求 心性無染 원제수도자인 절막외구 심성무염 本自圓成 但離妄緣 即如如佛 본자원성 단리망연 즉여여불

入道因緣 令汝除疑 汝須諦言 입도인연 영여제의 여수체신

망령된 생각 여의면 그대로 부처 그대몸에 있는데도 보지 못할뿐

願諸修道之人 切莫外求 心性無染 원제수도자인 절막외구 심성무염 本自圓成 但離妄緣 即如如佛 본자원성 단리망연 즉여여불

入道因緣 令汝除疑 汝須諦言 입도인연 영여제의 여수체신

과거의 모든 여래도 오직 이 마음을 밝히는 분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역시 마음을 닦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미래에 수행할 사람도 응당 이 진리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찾지말라. 마음의 성품은 깨끗하여 본래 스스로 원만한 것이라 단지 망령된 생각들만 여의면 곧 그대로가 부처일 것이다.

답하다. "그대 몸에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 가운데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는 것을 알고, 춥다, 덥다 하는 것을 알고 혹 성내거나 기뻐할 줄 아는데 이것이 결국 어떤 물건인가. 이 몸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요소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 그 바탕이 통하여 감정이 없으니 어찌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다. 그러므로 이제 스님은 '이 몸통이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도 못하며,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 못하고 단지 그대 눈 앞에 밝음이 역역하지만 형상이 없는 그것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없는 그것'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의 바탕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 지금 그대의 몸 안에 있는데 어찌서 헛되이 밖에서 구하겠는가. 만약 그대가 믿을 수 없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를 깨친 인연을 들어 그대의 의심을 풀어줄테니 그대는 잘 듣고 믿기 바란다.

問若佛性 現在此身 既在身心 문약불성 현재차신 기재신중 不離凡夫 因何我今 不見佛性 불리범부 인하야금 불견불성 更爲消釋 悉令開悟 경위서석 실령개오

問若佛性 現在此身 既在身心 문약불성 현재차신 기재신중 不離凡夫 因何我今 不見佛性 불리범부 인하야금 불견불성 更爲消釋 悉令開悟 경위서석 실령개오

문다. "만약 불성이 지금 이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 몸 안에 있으므로 범부를 떠난 것이 아닌데 어찌서 저지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하니까, 다시 해석하여 속속들이 깨달도록 해주십시오."

답다. "만약 불성이 지금 이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 몸 안에 있으므로 범부를 떠난 것이 아닌데 어찌서 저지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하니까, 다시 해석하여 속속들이 깨달도록 해주십시오."

答在汝身中 汝自不見 汝於十二時中

答在汝身中 汝自不見 汝於十二時中

김원각(시인·역경위원)

“참회의 시간 많을수록

태정스님 (서울포교원 주지)

불교는 이론이 아닌 실천의 종교입니다. 이론은 이론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신심과 발심으로 시작될 때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며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5살 때 지리산 영은사에 들어갔습니다. 출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몸이 약해서였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집에서 약 5km 떨어진 초등학교에 갔다오다 그만 정신을 잃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스님들이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절로 엮고 갖지만 며칠간 물 한모금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요. 이런 나에게 주지스님은 처방을 내려 주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라는 것이었지요.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부르면 아프지도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잘 때까지, 아니 잠을 자면서까지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며 쉬지 않고 염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스님이 시키는대로 뜻도 모른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불나물을 뜬다가 잠이 들 때도 있었답니다. 성장하면서 사찰의 생활이 하나씩 몸에 익숙해졌고 서서히 수행자의 길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스님들 기도할 때 같이 따라 기도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심이었다는 것을 후에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라고 해야 할 만큼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거저라도 즐겨 배우기를 힘쓰면 성인이 될 것이고, 성인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거지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의욕 즉 신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발심이 정각을 이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은사를 떠난 것은 여순반란사건의 후유증으로 절이 불에 타 소실됐을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해인사로 들어가 명허스님을 은사로 재출가를 하고 수행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8년 제2의 발심을 하고 경향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부처님을 존경만 하는 것보다 왜 존경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공부를 시작하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 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인과의 진리입니다. 하고자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하는 만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을



- 1928년 경남 함양생
1949년 해인사 명허스님 은사로 득도
1962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
1973년 불암사 주지
1975년 조계종 총무원 사무국장, 재우·포교부장, 불교신문 주간 역임
1987년 조계종 제4대 중앙종회의원
(現) 서울포교원 주석

신심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씨 뿌리고 가꾸지 않는것 같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홀리지 않는 곳에 성불의 꽃이 필 수 없고 보리의 열매는 열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 보람있는 것, 가치있는 것은 노력의 산물입니다. 땅의 결 과인 것입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은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입니다. 선방에서 용맹정진하는 수좌, 법당에서 일념으로 염불을 하는 스님의 모습이 성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가치있는 일을 달성했을 때 바람을 느끼

다. 막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편할 것 같지 않다 생각하게 되는데, 결코 참다운 즐거움이나 행복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행하는 동안 마장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마장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도 수행입니다.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 4·19가 일어나 주지스님이 바뀌고, 강사 스님마저 떠나셔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든 수행이든 혼자서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럿이 모여 규율을 정해

놓고 해야 여법하게 공부가 잘되는데 말입니다. 초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끌어 줄 스승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한참 신심을 내 공부할 때 쉬는 것은 굉장한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이 경향 공부대신 판문대장경이 봉안돼 있는 장경각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 참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터득했습니다. 기도생활이 하루하루 이어지면서 지난 날의 내 자신과 지금의 나를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정진하며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여겨 왔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시절 내 모습이 더 진실되고 깨끗했었던 것이었지요. 습의와 교리의 대개한 지식은 늘었지만 마음의 때는 더 젊어졌고, 정신은 더욱 혼탁해 졌다는 것을 알게했습니다. 그래서 참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참회의 시간이 많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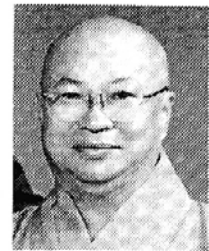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유무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원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해명 합장

Advertisement for 'Cross Health Method' (크로스 건강법) featuring a woman and product images.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들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목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